



Hi. I'm Sister Harriet Seton Newton. I am the oldest of four girls. My mother was a homemaker, and my dad was a mail man in downtown Pittsburgh. I met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when I attended Holy Innocents grade and high school in Sheridan, a section of Pittsburgh, Pennsylvania.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n September 8, 1960.

I was a First-Grade teacher for twenty-nine years serving in Pittsburgh, Greensburg and Maryland. My first-grade students were a blessing and a joy in my life. There was no greater privilege than to help lead them to Christ especially during the major liturgical seasons.

When I retired from teaching, I thought I'd try my hand with adults. I became a director for several years at the Elizabeth Seton Adult Day Care located at one of our parishes. Later, I became aware of an opening at St. Joseph House of Hospitality, a sixty-bed permanent residence for poor and homeless men in the Lower Hill District of Pittsburgh. As Manager, I was responsible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residents as well as for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facility. Ministering at Saint Joseph's for twenty-one years I witnessed and shared life with many poor souls who for whatever reason no longer



could function on their own.

Both ministries were an inspiration and a blessing. My desire has always been to "carry Christ to all." As Mother Seton said: "*Do your best and leave the rest to God.*" I am so grateful for my vocation as a Sister of Charity, and to this community that has made my desire a reality.



안녕하세요! 해리엇 씨튼 뉴턴 Harriet Seton Newton 수녀입니다.

저는 네 자매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였고, 아버지는 피츠버그 시내에서 우체부로 일하셨습니다.

피츠버그의 셰리던 Sheridan에 있는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Holy Innocents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960년 9월 8일에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피츠버그, 그린스버그, 메릴랜드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제 삶에서 큰 축복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주요 전례 시기에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은 가장 큰 특권이었지요.

교직에서 은퇴하면서 저는 성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중의 한 곳에 있는 엘리사벳 씨튼 성인 데이 케어 Elizabeth Seton Adult Day Care 센터에서 몇 년 동안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이후에 피츠버그 힐디스트릭트 Hill District에 60개 침실 규모를 갖춘 가난한 노숙자들을 위한 영구 거주 시설인 성 요셉 환대의 집 St. Joseph House of Hospitality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자로서 성 요셉의 집의 관리와 운영뿐 아니라 거주자들의 안전과 웰빙을 책임졌습니다. 21년 동안 성 요셉 환대의 집에서 사도직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도직 모두 저에게는 축복이었으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 소망은

항상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라는 마더 씨튼의 말씀처럼 저는 사랑의 수녀로서 제 성소에 감사드리며, 또한 제 소망과 목표를 현실로 이루어 준 수도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